



IMF, 신흥국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IMF(국제통화기금)은 10월 9일 신흥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였으며 신흥국 경제성장률 둔화에 대하여 우려함.

- 신흥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13년 4.5%, 2014년 5.1%로 7월 전망보다 각각 0.5%p, 0.4%p 하락한 반면, 선진국의 경우 2013년 1.2%, 2014년 2%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여 기존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함.
- 중국은 2014년 7월 전망보다 0.4%p 하락한 7.3% 성장이 예상되었고, 인도는 6.3%에서 5.1%로, 브라질은 3.2%에서 2.5%로 하향 조정되는 등 브릭스(BRICs) 국가들의 전망치 하락이 두드러짐.
-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, 필리핀, 태국, 베트남을 포함한 아세안 5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013년 기준 5.6%에서 5.0%로, 2014년 5.7%에서 5.4%로 하락함.
- 2014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신흥국 경제성장률 조정의 영향으로 3.8%에서 3.6%로 0.2%p 낮아졌고, 우리나라도 기존 전망치보다 0.2%p 하락한 3.7% 성장이 전망됨.

〈표 1〉 IMF의 경제성장률 전망

(단위: %, %p)

구분	2012년	10월 전망(A)		7월 전망(B)		차이(A-B) ¹⁾	
		2013년	2014년	2013년	2014년	2013년	2014년
세계	3.2	2.9	3.6	3.1	3.8	-0.3	-0.2
선진국	1.5	1.2	2.0	1.2	2.1	0.0	0.0
신흥국	4.9	4.5	5.1	5.0	5.4	-0.5	-0.4
중국	7.7	7.6	7.3	7.8	7.7	-0.2	-0.4
인도	3.2	3.8	5.1	5.6	6.3	-1.8	-1.1
브라질	0.9	2.5	2.5	2.5	3.2	0.0	-0.7
아세안5개국	6.2	5.0	5.4	5.6	5.7	-0.6	-0.3
한국	2.0	2.8	3.7	2.8	3.9	0.0	-0.2

주: 1) 반올림에 따른 오차(rounding error)가 존재함.
 자료: IMF.

■ **신흥국 경제성장률 전망의 하향 조정 이유로 미 연준(FRB)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확대, 중국 경기둔화, 미국의 정치적 갈등 등이 제시됨.**

-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가 빠르게 시행될 경우 경제회복 속도가 둔화될 수 있고, 투자자들이 신흥국에 투자한 대규모 자금을 일시에 회수할 경우 신흥국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음.
 - 미 연준의 성급한 양적완화 축소는 장기금리를 1%p 가량 상승시킬 수 있으며, 이는 채권가치 하락, 주식, 부동산,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, 그리고 신흥국 유동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.
-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중국이 자국 내 경제 펀더멘탈 강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향후 중국의 경기둔화는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음.
- IMF는 미국 내 정치적 갈등으로 미국 정부가 정부부채 상한선을 올리지 못할 경우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 붕괴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함.

■ **신흥국들의 경우 경제성장의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대외적인 요인에 의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뿐 아니라 자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.**

- IMF는 일부 신흥국들의 경우 관료주의, 정치적 불안정, 취약한 인프라구조 등 구조적 문제가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에 국가의 역량이 집중되어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부족하였다고 지적함.
- 지난 5월 미 연준 의장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시사를 계기로 신흥국 투자자금 회수 및 자산가치 급락이 나타난 것은 사실이나 신흥국 투자자들의 자금회수 결정에 신흥국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함.
- IMF는 신흥국들이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성장률 둔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, 강력한 개선노력을 권고함.

■ **한편, 한은은 수정된 IMF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반영하여 10월 10일 우리나라의 201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%에서 3.8%로 하향 조정함.**

- 한은의 2014년 전망치 하향 조정은 세계경제 성장률 및 교역 신장률 하향 조정과 원유도입단가 상승 등에 기인함.
-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, 미국의 정부예산 및 부채한도 협상 관련 불확실성, 중동지역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유가불안 등을 하방리스크로 지적함.

-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5월 유동성 문제가 나타났던 일부 신흥국들과 비교하여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으나 향후 경제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될 수 있는 몇 가지 위험요인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.
 - 첫째,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의 특성상 중국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는 우리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, 최근 ‘아베노믹스’ 정책을 통한 일본의 수출 경쟁력 제고 노력은 우리나라 수출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음.
 - 둘째, 가계부채 문제, 부동산 경기침체,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민간소비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민간소비 증진을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.
 - 셋째,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부채관리가 가속화될 경우 민간투자가 위축되어 민간부문의 성장기여도는 더 낮아질 수 있음.
 - 넷째, 향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시화 등 대외적인 요인에 의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금융시장 안정을 전제로 한 현재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더욱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임.

-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민간부문의 수요 위축이 경제주체의 위험회피 성향을 높일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위축이 장기화될 수 있고, 금융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.

(WSJ, FT, 연합뉴스 등)